



통권 90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1999. 4. 13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정부의 '인권법' 안 철회하라!

국가인권기구 설립문제 재논의 하라!

- 34명의 인권활동가, 명동성당 단식농성 벌여

18개 단체 소속 34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정부와 여당간의 밀실합의를 통해 확정된 '인권법' 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4월 7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인권활동가들은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인들만의 밀실합정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거부한다"며

"정부의 인권법안을 철회하고 국가인권기구 설립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16쪽)



사진 : 임종진 <말>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입법이나 부분개정이 아닌

전면철폐만이 대안이다

국가보안법 적용범위가 점점 좁혀져 이젠 존치의 근저마저 흔들리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 4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남대 총동아리연합회장 김 아무개씨 등 제 6기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없으며 이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판결문은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며 “북한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에 긍정적 평가를 하는 활동을 모두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특정단체의 강령이나 활동내용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 반국가 활동성을 인정할 수 없다.”, “6기 한총련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강령을 갖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적단체로 볼 수 없고 달리 이적단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은 이 사건이 처음은 아니다. 가장 최근사례만 보아도 대학생연합노래패 ‘천리마’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 5부 ‘이적단체구성혐의’에 ‘무죄선고’를 한 예라던가 (3.17) 한총련 대표로 평양 통일대축전에 다녀와 구속 기소된 덕성여대 황선 학생에 대한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의 특수집입·탈출혐의에 이의제기와 재검토 요구 등 사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에 이단 문제제기와 무죄선고를 내리고 있다. 사법당국의 이러한 시각은 위 판결요지에서도 보여 주듯이 단지 국가보안법 적용의 남용에 대한 제동만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적단체 규정에는 그에 앞선 반국가단체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정의

(제 2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가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리킨다고 할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국제법상으로 가능하나에 강한 의구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바로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일수도 있다. 사법당국의 또다른 시각은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반인권 조항들이 국제인권규약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했다. 대전지법의 판결문 가운데도 “우리 나라 헌법이 국제법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이를 존중하는 국제법 존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견해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법원이 이처럼 매우 절제된 법률용어로만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표현했다면 최근 행정당국자들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규정과 관련 (남북현실문제와 연결하여) 매우 중대한 발언을 하고 있어 이 법의 존폐 문제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월17일 홍순영 외교통상부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주한 외신기자 초청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 평화공존을 위해 북한의 주권국가적 지위를 인정하고 북한과 미국·일본이 수교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으며 박상천 법무부 장관도 3월 25일 대통령이 참석한 법무부 국정보고회의에서 “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고착시켜 대북정책을 제약하고 모호한 내용으로 안보와 무관한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어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개정 방침을 밝혔었다. 이러한 발언들은 분명히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에 정면 배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정치안보의 수단이었었던 때를 벗어나 남북현안문제를 푸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당국자가 뒤늦게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박상천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의 대응방식은 적잖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되면 직접 폭력을 동원하지 않는 한 체제전복을 위한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전면폐지는 안된다”는 것이며,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을 유지한 채 문제가 되는 제 7조 (찬양·고무 등)와 10조 (불고지) 등을 중심으로 손질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대체입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 말한 부분이다. 이 말들이 뜻하는 것은 나라안팎의 폐지요구에 마지못해 개정 또는 대체입법을 하되 오늘의 국가보안법 줄거리는 그대로 두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북한의 주권국가적 지위인정’이나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고착시켜 …’ 등 국가보안법의 뼈대라 할 수 있는 반국가단체 규정이나 그에 따른 처벌규정의 모순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문제가 되는 조항을 손질정도 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었다. 이 법이 제정될 때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혔었다. 대부분 우익진영만 5.10 단선에 참여하여 이루어진 제헌의회에서조차 47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폐기동의안’을 낼 정도였다. 반대이유로는 정치적 악용, 반민주악법, 사상탄압,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 등을 들기도 했다. 제정당시 6조 부칙으로 이루어졌었으나 역대정권의 당면한 정치·사회적 조건과 남북관계, 정권안보 차원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돼 온 것이 오늘의 국가보안법이다. 사형제

도도입, 국가기밀개념확대, 반국가단체 수괴뿐 아니라 수괴로 종사한 자까지 사형으로 하는 즉시법 규정형식을 상태법으로 규정하여 공소시효를 연장케 하는 등 강화된 이 법으로 희생되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수십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사고와 행위도 국가보안법이란 분광기를 통해 들여다보면 엄청난 반국가사범 이적행위로 둔갑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50년이 넘게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이란 명분아래, 실제로는 기본권 침해, 정권안보, 독재강화, 분단고착에 결정적 역할을 다 해온 이 악법이 이제 더 이상 견디어낼 자양분도, 버팀목도 잃고 있다. 바로 더 이상 존치할 정당성도, 실효성도 없어졌다. 남과 북은 이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서 상대가 반국가단체가 아님을 선언했고, 국제연합(UN)에 함께 가입함으로써 (91. 9. 24) 법적으로 그것을 확인했다. 또한 남북 합의서를 발효시켜 놓았다. (92. 2.19) 금강산 관광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사람이 북쪽에 다녀오며 경제·문화 협력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을 사실상 해오고 있다. 누구에게는 죄가 되고 누구에게는 면죄가 될 수는 없다. 법의 실효성은 시행에서의 형평성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은 부분개정이나 대체입법으로는 안된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 악법으로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곧바로 석방하라.

한총련 이적규정을 당장 폐지하라.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

제 소원은 우리 세식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변 의 숙 (34세)



내가 만나
본 황선희 씨는 참 선한
사람이다.

마음이 연두
빛 새순처럼 여
리고 부드럽다.

그렇게 선한 사람의 눈에서 맑게 흐르는 눈물을 대하는 일은 너무나 가슴 아파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황선희 씨는 정말 잘 운다.

'민가협'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만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창신동 민가협 사무실 길목에만 들어서도 또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다. 작은 몸 어디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고여있는 것인지. 오랜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살아낸 사람의 몸은 어느새 눈물 주머니가 되고 마는 것일까.

황선희 씨의 남편 최호경 씨는 1992년 '민애전' 사건(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무기형을 선고받고(99년 2월 25일, 20년형으로 감형) 7년째 감옥을 살고 있다.

최호경 씨는 92년 9월 10일 안기부에 불법 연행되었다.

그날도 추석을 하루 앞둔 날이었는데 차례 준비로 바빠야 할 남편은 밤이 깊도록 들어오지 않았고 하루가 지나도 소식조차 없었다.

무슨 일일까, 불안해진 황선희 씨는 이곳 저곳 수

소문을 해본 끝에야 언론보도를 통해 남편이 안기부에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실린 <한겨레 신문>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몇번이나 떨어뜨리곤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망연자실 뉘를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우선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을 만나야 했고, 남편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렇게 해서 황선희 씨는 선배를 통해 알게 된 민가협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 후 남편이 안기부에 감금되어 있던 2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안기부 앞에서 농성을 했다.

물론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였다. 남편 면회를 요구했고, 선거 때면 어김없이 조작간첩 사건을 터트리는 안기부를 규탄했다. 그러나 안기부는 면회를 끝내 가로 막았음은 물론 사건을 점점 엄청나게 물고갔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힘든 일이었지만 늘 위로해 주고 힘이 되어준 민가협 어머니들이 게 서서 견딜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지금도 종종 생각하곤 한다.

황선희 씨는 남편 최호경 씨를 가리켜 한마디로 매우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정직했기에 신뢰할 수 있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다는 말일 것이다.

황선희 씨는 선배의 주선으로 당시 노동운동을 하던 최호경 씨를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곧 믿고

민혁이는 중학교 입학식에
아빠 손을 잡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기대감도 컸다.
황선희 씨 또한 그럴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국 배반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사랑하여 결혼을 했다. 가난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단란한 가정을 꾸린 두 사람은 마음 가득 풍요로움
과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그 단란한 가정을 더욱 더
완벽하게(?) 빛내줄 아들 민혁이가 태어났다. 어느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어느 부자가 다정하
지 않을까미는, 이 두 사람은 그 정이 유난히 돈독하
고 각별했다. 황선희 씨가 때때로 소외감을 느낄 정
도였으니까.

그런 아빠와의 이별을 이해하고 감당하기에 7살
은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혁
이는 '영감'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어른스러워서
엄마를 걱정시킬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참으로 바
르게 잘 자라주었다.

지금 황선희 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존재는
역시 아들 민혁이다. 민혁이가 곱고 올바르게 성장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크나 큰 즐거움이며 보
람이다.

민혁이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다.

아빠가 구속된 이듬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으니, 이별의 아픔속에서도 아
이는 성장하고 세월 또한 가는 것인가.

황선희 씨는 중학생이 된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된다. 아들이 어릴때는 엄마 혼자
서도 두 사람 몫을 하며 키울 수 있었지만 이제 막
사춘기를 맞은 아들을 홀로 키울 자신이 없는 것이
다. 어른이 되려고 준비하는 14살의 소년에겐 보다
깊은 대화를 나눌 만한 '어른 남자'가 필요한 것일
테니까. 그 역할은 당연히 아빠가 하는 것이 가장 좋
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민혁이는 중학교 입학식에 아빠 손을 잡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기대감도 컸다. 황선희 씨

또한 그럴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
국 배반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민혁이는 아빠 없는 눈물의 입학을 맞았으며, 민
혁에게 아빠를 돌려주고 싶다는 황선희 씨의 소망은
산산히 부서져 버렸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단행한 2.25사면
조치는 황선희 씨 가족에겐 쓰라림만 안겨주었을 뿐
이다.

남편이 '준법서약서'를 썼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후, 2월 25일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던가.

기다림이 그토록 달콤한 것인지를 처음 알았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말을 비로소 실감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쁨과 설렘도 잠시뿐 2월 22일의 사면
발표는 그 기쁜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그렇다.

그날의 분노와 절망감을 황선희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민가협을 통해 남편이 20
년으로 감형만 되었다는 말을 들은 황선희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과 슬픔으
로 떨리는 몸을 가누기 힘들었다. 난생 처
음으로 이날 청심환을 먹었다. "일손이 안
잡혀 도중에 집으로 오는데 스치는 바람
과 구름, 그리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구나" 싶어 하늘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
다. 황선희 씨는 그 때를 이야기하며
급기야 눈물을 쏟고 만다.

아빠가 구속된 이듬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어느
새 중학생이 되었으니, 이별의 아픔속에서도 아이는
성장하고 세월 또한 가는 것인가.



아빠와 헤어질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는 올해 중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 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그토록 염원하던 정권교체도 되었고

이제 마지막 소원은 우리가족 세 식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남편이 구속된 후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느냐는 질문에 “이번 사면때 남편이 제외된 일”이라고 서슴 없이 대답한다. 남편 최호경 씨가 사형구형 받았을 때도 무의식 중에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법정에서 끌려나올 정도로 놀라고 화가 났었지만 이번 만큼은 아니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사형 구형 때보다 더 절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었을 정도이니 그 고통이 어떠했을 지는 짐작만으로 가슴이 아프다.

여간해선 울지 않던 민혁이가 울며불며 뛰쳐나가던 그 아픈 광경을 피눈물 없이 어찌 지켜볼 수 있었겠는가.

황선희 씨는 요즘 약을 먹는다. 자주 심하게 어지러워지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혈액순환이 잘 안되기 때문이라며 신경성이라고 한다.

그토록 기대했건만 남편이 풀려나지 못하자 그로인한 절망감이 증상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만 훌훌 털고 일어나 힘차게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다. 남편의 석방을 위해, 이제까지 해온 것 보다 몇배 더 열심히 뛰어나달라 걱정이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면 가슴펴고 자랑할 수 있도록 민혁이를 훌륭하고 건강하게 키울 것이다.

황선희 씨는 말한다.

남편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가 석방될 수 있도록, 양심수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국가보안법이 하루빨리 철폐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따뜻하고 화사한 봄이다.

선하고 소박한 사람, 황선희 씨의 가슴속에도 봄이 활짝 피어나길 간절히 바란다.

대통령님께

어려운 나라 경제를 살리시기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국민의 아픈 마음 보듬어 주실 곳이 한 두 곳이 아니겠지요. 저는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양심수의 아내이지요. 남편 이름은 최호경, 92년 대선 직전에 구속되어서 지금까지 무기수로 기약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하고 함께 살면서 공장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지요.

어디서나 어려운 경제를 실감하듯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을 했지만 사장이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고 도주하고 임금은 받을 수도 없이 감감한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아들이가 있기에 잘 키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쓰러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남자들도 돈 벌기가 어렵다고 야단인데 여자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든지 하루하루 그 무게가 더해집니다.

아빠와 헤어질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는 올해 중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 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그토록 염원하던 정권교체도 되었고 이제 마지막 소원은 우리가족 세 식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디 건강하시고 잊지 못할 대통령님으로 남으시길 기도합니다.

황선희 드림

위 편지는 황선희씨가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입니다.

이 글을 쓴 변의숙님은 92년 민애전 사건으로 구속, 8년형을 선고받았고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지난 98년 8월 15일, 6년만에 풀려났습니다. 지금은 충북 음성에서 어머니 이윤숙님(민가협 열성회원)과 흠을 파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정의롭게, 단단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싸워갑시다!”

3월 31일, 1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 열리기로 되어있는 14차 민가협 총회. 장소 꾸미기에 여념이 없을 시간에 2시로 예정된 시간을 어기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광주, 대구, 부산, 대전에서 올라 온 지



동작의 울동에 서경원 전 의원의 환상적인 춤이 어우러진다.

98년 8·15 석방자들의 순서. 변익숙, 강순정, 김성만, 황대권, 양동화, 유재선 님등의 '서울에서 평양까지'. 왔으나 서나 민족의 분단의 염려하

방민가협 회원들, 지난 2월 25일에 석방된 분들을 비롯해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 총회 축하를 위해 온 내빈들, 그리고 총회의 주인공인 어머니들과 후원회원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근래 보기 드물게, 시간 약속이 잘 지켜진 행사인가보다.

1부 총회와 2부 '장기수 우용각 등 3·13, 8·15, 2·25 석방자와 함께하는 양심수를 위한 작은 음악회'로 진행되었다.

1부 총회는 박용길 장로님의 개회사로 문을 열어, 참석자를 거의 빠짐없이 소개한 뒤 14차 총준위 경과보고, 98년 사업보고 및 재정보고, 감사보고 등 98년 사업을 평가하고 99년 사업을 결의했다. 신임의장단 인준, 신·구 의장단 인사, 최영도 민변 회장의 축사가 이어지고 총회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1부 순서를 마쳤다.

사회자 최광기, 김정환의 등장과 〈조국과 청춘〉의 노래로 2부 순서의 막이 올랐다.

국민의 정부 이후 혼신의 힘을 다한 석방운동의 결과 이루어 낸 3차례의 사면으로 석방된 양심수들의 '재물잔치'가 시작된다.

98년 3·13 석방자들의 순서. 엄마, 아빠를 한꺼번에 찾은 한솔이와 홍경선 님의 '바위처럼' 노래에 맞춰 신인영, 김인수, 홍경선, 최하중, 진관 스님 등이 만들어내는 느린

는 사람들이라 역시 노래도 통일의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불렀으리라.

만기 출소자들(본인들 스스로가 사면 때 석방된 사람들의 그늘에 가려 빛을 못 본다고 생각하고 있다)의 순서가 마련될 예정이었으나 시간관계 상 생략되어 다시 한번 심한 소외감을 맛보았다는 후문이 있다.

막간 코너로 진행된 고봉희, 신인영 모자의 '통일의 길'

'제가 눈감기 전에 아들을 보내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젊은 청년들이 하루속히 풀려나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꼭 챙기시는 어머니는 언제 보아도 넉넉한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노모와 늙은 아들이 밤마다 잠자리에서 손을 꼭 잡고 부른다는 '통일의 길'을 정말 열심히 부르는 모습에 모두들 눈시울을 붉혔다.

따끈따끈한 2·25 석방자들의 순서. 감옥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의 의혹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시와 노래의 종합예술이 이루어진다.

우용각 선생님의 감사 인사로 점잖은 예를 마치고 이어지는 양희철 선생님의 시 '꽃편지'가 성우 못지않은, 분위기 있는 목소리로 흘러나오고, 최수일 선생님은 5월 광주를 노래한 자작시를 몸집에 맞지 않게 우렁찬 목소리와



인민배우(?)
뺨치는 손
동작과 어
울러 좌중
을 압도하
기에 이르
렀다. 예술
은 여기서
끝나지 않
고 리공순

선생님의 노래로 이어진다. 사회자의 질문에 아랑곳없이 너무나 노련한 몸동작으로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반주를 청한다. “〈사랑으로〉나 〈아침이슬〉 중에 하나 부탁드립니다.” 애석하게도 반주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무반주로 뽑아내는 〈아침이슬〉은 양희은 씨가 가수생활을 정리해야 할 정도로 대단한 열창이었다.

배우 원창연 씨. 이제는 고인이 된 김남주 시인이 함께 감옥살았던 장병락 선생님(2월 25일 풀려남)을 생각하며 쓴 시를 낭송하자 장내는 곧 숙연해졌다. ‘통일이되면 우리 집에 꼭 놀러와’라고 한 장선생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남주 시인을 그리는 걸까. 가수 강은영 씨의 노래 ‘어머니’가 이어지며 문병란 시인의 시 ‘민가협’이 낭송되었다.

2부의 하이라이트 ‘감옥에서 온 선물’

몇차례의 석방이 있었지만 아직도 감옥에 있는 200여명의 양심수가 있다.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이 밖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는 선물을, 석방된 양심수들이 대신 전해주는 감동적인 시간.

92년 민애전사건으로 구속되어 무기형이 선고되어(99.2.25. 20년으로 감형) 8년째 갇혀있는 최호경 씨가 부인에게 보내는 부로우치와 후리지아 한다발 그리고 사랑의 편지를, 지난 8월 15일 석방된 장창호 씨가 대신 전한다. ‘엘레지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눈물이 많은 황설희 씨는 어김없이 눈물 바다를 만든다. 남편의 품에 안겨 8년의 한을 씻어내듯 실컷 울어버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

면...

오형식 선생님이 대구교도소에 같이 있었던 안재구(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 20년) 씨를 대신하여 부인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외할아버지 품에 한번도 안겨보지 못한 외손주를 힘껏 안아준다. 희한하게도 외손주는 외할아버지를 꼭 빼 닮았다.

김호(명치대생)군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진관스님이, 이환영(인천대생)군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책을 조상록님이, 권순욱(건국대생)군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어머니, 사랑해요! 꽃글씨를 정영훈이 전달한다.

한솔(지난 3.13때 석방된 김성식, 문순덕 씨의 아들)이가 친구 준홍(94년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 3년6월형이 선고되어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 민경우 씨 아들)이에게 “준홍아, 힘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아빠가 나올거야...” 예쁜 글씨로 적은 카드와 함께 꽃나무를 전해주며 격려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두 딸(이은미, 이희)과 사위(임동식)가 한꺼번에 구속되고 딸 이은미 씨는 허리디스크로 곧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환자 처지에 놓여 있는 아버지가 있다. 이 아버지에게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딸이 따스한 마음을 간직하시라고 보내는 생활한복을 변의숙(98년 8월 15일, 7년만에 석방)가 아버지 품에 안겨드린다.

그리고 손성모, 신광수, 류락진, 조덕원, 최진선, 김창학, 윤영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리고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기다리는 많은 양심수들이 아직도 감옥에 있다.

언제나 그렇듯 민가협 총회는 온전히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될 수는 없는가 보다.

99년도 “용감하게, 정의롭게, 탄탄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싸워갑시다!”라는 결의를 새롭게 다지며 총회의 막을 내린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정신은 뺏지 못해’

구술 · 김익진 / 정리 · 유현미(회원, 32세)

막상 나오니까 덤덤해.

고향은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이고 1930년 7월 13일 생이야. 우리 집은 남자 서이, 여자 녀이 해서 3남 4녀 중에 내가 맏이야. 부모님은 농사지셨지. 빈농에 속하는 형편이었고. 1940년경 아버지 혼자 만주로 갔어. 2, 3년 뒤에 돌아왔는데 한 달도 못 되어 일본 보국대 징용에 끌려가셨지. 끌려가다가 중간에 도주를 했어. 밤에 오셨는데 우리들 어린 자식들은 모르게 어머니만 잠깐 만나고 바로 떠나셨지. 아버지가 사라진 뒤 자꾸 경찰이 찾아온단 말이야. 아버지가 안 왔는가, 어머니한테 자꾸 추궁하고, 안 왔다고 대답해도 자꾸만 찾아와서 가정 집을 감시하고 이러니까 거기 계속 못 있고 집을 옮겨 버렸지. 외갓집 근처로. 그러면서 팔일오 해방을 맞았어.

해방 전에 1940년이면 내가 열 살 무렵인데, 소학교 입학은 해 놓고 형편이 어려워서 다니지는 못했어. 어머니 혼자 농사짓고 누이들이 나무하러 가고 그러니, 맏이로서 아버지께 대한 의견(불만)이 좀 있었던 말이지. 그런 내 의중을 알고 아버지가 “이담에 우리 나라가 독립이 되면 너 같은 배우지 못한 아이들도 배울 수 있다.”고 하셨지.

해방 후 아버지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무슨 특별한 활동



서울 갈현동 만남의 집에서. 뭐 드시고 싶으냐 여쭙니까 고향(영덕)에 가서 펄펄 뛰는 회 먹어야지, 그러시네요.

을 하지는 않으셨어. 오히려 외가의 친척들이 좌익 운동을 활발히 했지. 또 우리가 살던 부락, 지방 유지의 자제들이 일본 유학 갔다 와서 좌익 활동 많이 했지. 그때 당시 야학을 조직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공부시켜 주고 그랬어. 거기서 공부를 했지. 아주 작은 일부터 배워가며 활동을 시작하고. 47, 8년도엔가 좌우 대립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부락 내에서도 청년들이 두 패로 갈라졌지. 합법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낮에는 산으로 가서 피신하고 저녁에 내려와서 활동하고 그랬어. 전쟁이 터지고 인민군이 낙동강에 내려올 때까지도 비공개적인 활동을 하며 산에 있었어.

포항 영일만 지구에 있다가 오랫동안 고향에 한번 둘러보니. 그 때까지도 나는 몰랐는데, 내가 입산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탄압을 많이 받았던 거야. 부모는 ‘강구’라는 집단 부락에 격리되었고 동생들은 사방에 뿔뿔이 흩어지고. 그 집단 부락에서 우리 부모가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았다고 해. 동생들은 ‘빨갱이 식구’ 소리를 들으며 이 집 저 집 숨어다니면서 살았다 하고.

얼마 안 있다 후퇴했지. 50년도 추석 무렵이었나. 영주, 문경, 제천, 단양 쪽으로 옮겨 가는데, 단양에 왔을 때 후퇴하지 말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

은 거야. 그 길로 유격활동 하려고 소백산으로 들어갔지. 태백산, 일월산에도 들어갔다가 소백산으로 다시 돌아가고. 세균전 때문에 열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어. 나도 걸렸지, 두 번이나. 이 열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쳐지거나 떨어져 나갔지. 작대기를 짚고 걸으며, 빈 집에서 자고 계속 갔어. 도당 중심에서 떨어져 가다 보니 황해도 쪽으로 가게 됐어. 풋말 보고 겨우 찾아갔지. 그 때가 내가 스무살, 스물 한살 때였나.

51년 말 아니면 52년 초에 평양에 갔어. “뉘를 하고 싶느냐”고 누가 묻길래 남쪽에서 배우지 못한 게 생각나서 “공부하게 학교 좀 보내주소” 했지. 그래서 학교에 가게 됐어. 김일성대 예과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인 내 실력으로는 따라잡을 엄두가 안 나더라구. 그답에 들어간 데가 혁명유자녀학원이야. 원래는 혁명유자녀들만 다니는 학원인데, 나는 어린 나이에 그간의 투쟁경력 등이 인정되어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 특별반에 속하는 숙성반에 들었지. 그 학원 나온 뒤 다시 남포원에전문학교에 가서 58년에 마쳤으니까 52년부터 58년까지 원없이 공부한 셈이지.

스물 여덟살 때야. 1958년 함경남도 신상군 인민위원회 기술부에 과수(果樹) 담당으로 배치됐어. 64년까지 거기서 일했지. 인민위원회는 여기로 말하면 군청 같은 곳이랄까. 결혼은 61년도에 했지. 방직일을 하던 일곱살 연하의 여인을 만나 한 반 년 사귀고, 당시 함경도에서는 결혼하면 여자 쪽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나는 후회하는 거야. 내 일이 너무 바빠서 잘해 주지 못했거든. 그것이 가슴에 맺혀. 함경도 여자는 생활력이 엄청 강해. 마누라가 늦게 날엔 집에 먼저 온 내가 탁아소에서 애들 데려오고 밥도 지어 상 다 봐 놓고 (아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밥 먹지. 우린 혼자 먼저 먹지 않거

든. 그러면 늦게 마누라가 돌아와서 놀라는 거지 뭐. 팔구년을 같이 살면서 다름 한 번 없었어. 금슬이 좋았지. 더 잘해 주지 못한 게 가슴 아파. 저쪽에서는 분위기가 그랬어. 자기 처에 대해 욕 같은 거 안 해.

자녀가 셋이야. 다 네 살 차이지. 1남 2녀데, 첫째가 아들 김철수, 서른 여덟이고, 둘째는 김정옥이야. 서른 넷.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막내 녀석 이름 지어주며 (남으로) 왔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1965년에 함흥공산대학에 들어가 1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소환되어 남으로 왔어. 69년 6월에 묵호 근처 어느 뒷산에서 잡혔지. 그 때 다리, 무릎, 여기 대퇴부랑 해서 사방에 총 맞았어. 지금까지도 그때 총상으로 다리가 불편해. 그래도 젊었을 때는 모르겠더니 늙으니까 어떻게나 아픈지 몰라. 무릎 종지뼈가 완전히 부서졌었다구. 미 8군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고쳐준다며 전향 공작을 해대는 거야. 안 하니까 치료도 안 해주고 3일 만에 퇴원시켜 다시 집어 넣어버리더라구. 다리가 하도 부어올라서 참다 못해 운동할 때 운동장에서 주는 유리조각으로 피고름을 터쳤지. 피고름이 저기까지~ 터져 나갔어. 그때 옆방의 김규철 선생님이 닭으라고 뭘 줬어. 똥고 하니, 자기 꺼 현 난닝구를 찢어서 피고름 닭으라고 주는 거야. 휴지 조각 하나 없으니(휴지는 하루에 두 세장 주고 말어) 닭을 게 있어야지. 피고름을 짜고 나니까 바를 약이 없어. 감옥에서 그때는 보리밥을 줬지. 보리밥을 찢고 빨래비누를 유리조각아 넣어서 합치니까 찢덕찢덕한 덩어리가 돼. 그걸 다친 데 붙이고 난닝구로 싸매고. 김복술이라는 사방 담당이 그 모양을 보고는 나를 엮고 병동에 데려다 줬어. 의사가 보니까 너무 어이없거든. 그 지경이 되도록 사람을 내버려 두다니. 뼈 부러진 게 네다섯 개가 나오고, 너무너무 잔인해.

얼마나 통제가 심했는지 몰라. 운동하러 오가며 눈빛 한 번 맞췄더니 그걸 '통방'으로 오해하고는 운동도 못하게 했어. 수갑 채우고, 정말 지독합디다. 그래서 단식을 또 시작했지. 그러자 그 이튿날에 풀어주대. 대전에만 있었어. 대전이 (감옥 가운데) 제일 어려운 곳이라. 류락진 선생님만 아직 거기 남아 있어.

74, 5년 경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87, 8년 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어머니는 가끔 내 면회 오셨어. 향숙이도 가끔 왔지. 막내 동생인데 그때는 처녀야. 90년 1월 1일에는 한꺼번에 열 몇명이 면회 오기도 했고.

어제(1999년 3월 27일) 식구들이 (갈현동 만남의 집에) 왔다 갔어. 이게 얼마만인지. 매제들도 오고 제수씨도 오고 죽은 동생 아들도 오고. 어린애도 하나 오고. 열명이나 어제 왔다니까. 오늘 오전에는 육촌 동생 환갑에도 갔다 왔어. 거기 가니깐 정말 식구들이 '어머어마하게' 모여 있대. 제일 좋은 거는... 어제 그 동안 쌓인 거 다 풀었어, 피차. 확 풀었지.

고향 하면 떠오르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거. 만이로서 돌봐드리지 못한 거. 혈육들은 이제 다 만나봤으니, 고향에 가게 되면 소꿉친구들 만나야지. 가서 흥금 다 털어 놓고 만나야지. 어렸을 적 그 친구들 모습이 눈에 선해. 설레여서 가슴이 뛰어. 하루 빨리 고향에 가서 '백공사' (104)세 먹은 고모님 만나 뵈어야지. 고모가 나를 참 이뻐했거든.

심장이 안 좋으니까 혈액 순환도 안 되고. 신장도 안 좋아. 얼굴이 금새 붉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피가 머리에 몰려서 내려오질 않으니. 차만 타면 떨미하고 그래. 고문 때 문에 오른쪽 다리는 구부러지지도 않아. 올라갈 땐 그래도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다리가 안 굽혀지니까 힘들어. 감옥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낸 딸 같은 한의사 처녀가 있

어. 대전에 사는데 지금도 소포로 약을 보내오고 그래, 내가 많이 아프니까.

잠은 밤 10시 지나서 자고 아침 5시쯤에 일어나지.

오랫동안 감옥에서 들인 습관이야.

일어나서 이불 개고 방 청소하고, 약간 미지근한 물 섞어서 냉수 마찰하고. 이거는 교도소 생활과 똑같애. 그리고 산책도 꼭 해. 첫날에는 뒷산까지 절반도 못 올라갔어, 힘들어서. 다음날엔 조금 더 가고, 그래도 날마다 안 빼놓고 산책하지.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온 것...

속으로야 피눈물을 흘려도 밖으로는 눈물 한 방울 안 보였어. 약한 모습 놔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그 괴로움을 다 겪으면서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 정신은 뺏지 못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지.

내 귀? 박정희 귀하고 똑같다고 사람들이 놀려. 허허.

• 김익진 선생님은 1930년 7월 13일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뒤 인민군 퇴각 때 북한으로 갔지요. 함경남도 신상군 인민위원회 기술부에서 일했고 1965년에 함흥공산대학을 수료했습니다. 1969년 6월 10일 육상안내원으로 내려오다 목호 근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무기형을 선고 받고 30년 동안 복역한 뒤 지난 2월 25일 출감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갈현동 만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 김익진 선생님의 말씀을 정리한 유현미 회원은 현재 <작은것이 아름답다> 글결매김꾼(객원기자)으로 좋은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원회소식>을 더욱 알차게 꾸며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눈, 바람과 함께한 3월 북한산

신현부 회원, 36세

아침부터 비가 와 날씨는 흐렸다.

지난달 산행은 김밥도 준비하고 부지런을 떨던 집사람이 피곤한지 음식준비를 하지 않고서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다. “정옥언니~ 우리 밥도 같이 싸줘요~”

꽤히 승낙을 얻고 우리 집 식구는 수저만을 준비한 채로 산행을 떠났다.

지난달 산행에는 날씨가 좋았지만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고 이번 산행은 날씨도 맑지 않았는데도 연신내 지하철역은 산행을 하려는 사람으로 가득 모였다.

이는 사람은 이는 사람대로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채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눈인사를 주고 받았다. 모두들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인원을 점검하고 나서야 3월산행을 출발하였다. 거친 돌산을 헤치고 올라가면 호흡이 가빠지고 땀이 난다. 이러니 평상시에 운동을 해 몸을 단련시켜야 하는데 하면서도 그때뿐임을 나 스스로도 너무나 잘안다. 숨을 쉼쉼거리며 산중턱을 올라서니 20여명 정도 되는 체력단련장이 나온다. 체력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으레 철봉과 평행봉을 잡아 자신의 건강미를 자랑하려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고 젊은 사람이야 아직 젊음이 있으니 붙잡을 힘이라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턱걸이를 하시는 모습은 정말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한다. 연세가 70이 넘어선 지도 오래건만 지칠 것 같지 않은 힘은 정말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산을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다 어느 중턱에와 보니 산아래 쪽은 비가 왔지만 산위로 올라갈수록 비는 눈이 되어 피어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탄성이 저절로 나게 만들었다.

사람이란 이렇게 어떤 지점과 지점이 구분되는 사이점을 지날때면 묘한 낯설음의 감정이 생기나보다. 당연히 일행은 아름다운 눈꽃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얼마를 더가 양지인 곳을 골라 다들 사가지고온 도시락을 꺼내먹었다.

이렇게 맑은 바람을 맞으면서 산중턱에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할 때마다 기분이 좋다. 모든 것을 사고 파는 흐름속에서 서로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따스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다.

날씨는 비와 눈이 온 후라 바람은 사정없이 차가와 식사를 끝낸 후 일행은 서둘러 하산을 했다. 권선생님이 잡은 코스란, 우리가 암벽등반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려가는 각도가 족히 60도는 되보였다. 걸어서 가야할지 기어서 가야할지 그래도 걸어서 가는 것이 내려가기가 편하 여 다들 걸어서 잘도 내려갔다. 다 내려가 우리가 지나온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산 비탈길을 바라다보니 아찔했다. 경사가 굉장히 급했던 것이었다.

북한산을 거의 다 내려와 갈현동 만남의 집을 방문하기로 하여 산행일행은 전부 갈현동으로 출발하였다. 전철역에서도 꽤 올라가는 거리였다.

벌써 여러 곳에서 온 청년들과 손님이 먼저 와 있었고 선생님들은 우리 모두를 반갑게 맞아 주셨다. 간단하게나마 선생님들과 우리들의 소개가 있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그 분들의 목소리와 눈빛만으로도 투철한 삶의 자세와 꺾이지 않은 정신을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었다. 우리가 오래 앉아 있을 시간도 없이 또 다른 청년모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우리들은 자리를 비켜주어야 했다.

이렇게 3월 산행도 소중한 만남과 헤어짐으로 끝나며 마음 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논어를 읽기 전이나 읽고 난 후나 사람이 변한 것이 없으면 소인배라고 한데 산을 오른 후나 선생님들을 만난 후에도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어라 말할까.

한글서체

일시: 1999년 4월 24일(토) 오후 3시 30분

장소: 흥사단 대강당 3층

문의: 사무실(763-2606)



한글서체

다시 진달래 붉게 피는 혁명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4월 산행은 우이동 그린파크에서 시작해 도선사-용암문-동장대-대동문-진달래 능선-4월혁명 국립묘지를 참배하고자 합니다.

언제: 1999년 4월 18일(일) 오전10시

모이는 곳: 우이동 증점 그린파크 앞

준비할 것: 화비 3천원, 맛있는 도시락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7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니요?

손우정

저는 서울산업대학교 전기전자대학 학생회장 손우정입니다. 작년 말, 비록 부족한 점은 많지만 대학생 활동을 의미 있게 정리하고 싶어 학생회장에 출마해 투표를 통해 당선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9일, 제게는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노원서 보안과 형사라고 밝힌 사람 2명이 집에 찾아와 제 누이에게 한총련 탈퇴를 종용하고 간 것입니다. 형사들의 말을 빌리자면 단체 학생회장이 되었으니 자연스레 한총련 대의원이 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탈퇴를 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수배자가 된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자가 되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문제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한총련은 학우들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 학생회장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대의원의 자격을 주고 그들이 모인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사업방향과 정책들을 정해나가는 학생 조직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의원 대회도 열리지 않아 건설되지도 않은 7기 한총련이 이적 단체라고 저와 같은 처지의 학생들을 전원 구속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선거유세를 다니며 바람직하고 올바른 학생운동 발전에 힘쓰겠다고 학우들과 약속했습니다. 한총련도 물론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우들의 힘과 지혜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인 대의원 대회도 허용하지 않고 학생대표들에게 구속과 수배의 협박을 가하는 것은 올바른 학생운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침묵' 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많은 친구들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현재 수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집안이 뒤집어지고 부모님들은 경찰의 협박과 회유에 못이겨 앓아누워 계시기도 합니다. 그냥 종이 쪽지 한 장 써주고 편안하게 학교 다니며 마음놓고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유혹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지지를 부탁하며 학우들과 했던 약속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며 떳떳하게 영어 생활을 감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날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만의 안락을 위해 불의에 굴복하게 된다면 저는 제 양심에도 떳떳하지 못하고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저도 얼마 뒤에 철장에 갇혀 있는 양심수들과 같은 처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역사 속에서 밝혀지듯이 우리의 정당함도 곧 밝혀질 것입니다. 비록 저 하나는 미약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분명 이 사회는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수배생활을 견디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십시오. 애정어린 질책과 관심만이 학생운동을 올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고, 이 사회를 좀 더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도 마음 편안히, 떳떳하게 집으로 돌아가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도 안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없이 갇혀 있는 양심수들과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를 거닐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손우정 학생이 3월 18일, 민가협 272회 목요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김대중 대통령께.

먼저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노고에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96년 8월, 연세대 사건으로 구속되어 지금껏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최진선입니다. 감히 대통령께 면담을 청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올립니다. 면담을 청원하는 이유는 '준법서약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준법서약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인권단체와 학자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감히 면담을 청원하는 것은 '준법서약'의 당사자인 제 처지와 견해를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서 연사의 연설을 듣고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고무, 찬양한 '죄'를 범한 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재와 법과 질서를 부정한 자로 강요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하소연을 해도 검찰과 법원은 끝내 저를 체제전복 세력, 폭력분자로 만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대한민국의 존재와 법 질서를 인정하라'고, 그러면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기쁨과 기대로 바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대대적인 양심수 석방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새 정권이 50 여년 왜곡되어 온 역사와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믿음이었으며 또한 그것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이유이자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저는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준법서약'을 제안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준법서약'에 대해서 보수세력의 반발을 고려한 대통령의 '명분찾기'로 이해하려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준법서약제'는 양심수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또한 저는 흑백논리를 적용하여 '준법서약'을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려는 것'으로 낙인찍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준법서약'을 받기위해 검사가 찾아 왔을 때 '준법서약에 대한 견해'라는 저의 뜻을 서면으로 작성해 공식 제출했습니다.

'준법서약에 대한 견해'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다." "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헌법에 명시된 사상, 양심, 집회, 결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는 속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또한 "내란과 부정축재의 죄를 범한 전두환, 노태우 등을 무조건 사면한 것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신체의 자유를 미끼로 내심을 드러낼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준법서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내심을 드러내는 것까지 감수하며 저의 뜻을 밝혔지만 결국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의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이전의 정부와는 그 바탕부터 틀리다고 믿기에 이렇게 면담을 청원할 생각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재소자의 신분으로 대통령과 면담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면담을 허락하실 때까지 단식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준법서약제'를 철회하기를 바라는 저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목포교도소 양심수 최진선 드림

※ 이 편지는 3월 8일부터, 21일동안 준법서약 철회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단식을 했던 최진선(한국의국어대 용인교정 총학생회장, 96년 연세대 사건으로 구속, 현재 목포교도소 수감중)씨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34명의 인권활동가,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 우리는 정부의 '인권법' 안을 거부한다!

지난 3월 30일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이른바 '인권법'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권유린의 현장을 뛰어다니며 인권 피해자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아온 우리 18개 단체 인권활동가들은 지금 정치인들만의



밀실홍정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거부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50년만에 감격스런 정권교체가 이뤄지던 바로 그 날, 김대중 대통령은 상기된 얼굴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올라온 그 때의 뜨거운 감동을 우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그것은 바로 고난의 시대를 힘겹게 살아내며 많은 이들이 애타게 불렀던 이 나라의 참된 이상이었습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치는 그와 같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치세력에도 간섭받지 않고, 높은 권위와 강한 권한을 가지고 오로지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가인권기구의 탄생, 그것은 곧 권력이 횡포를 부리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약한 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새시대의 열림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1년동안 우리의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변했고 그 실망은 이제 다시 커다란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설립을 법무부의 손에 맡긴 것은 ‘인권대통령’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법무부가 어떤 곳입니까. 군사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세력에 검찰권이라는 칼을 동원해 가장 앞장

서 막아온 곳이 아닙니까.

법무부는 처음부터 밀실논의로 일관했고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산하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인권·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해 온갖 인맥과 영향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 했습니다. 검사출신 청와대 참모는 미국의 인권단체 관계자 몇 명을 만난 결과를 가지고 국제여론을 왜곡함으로써 대통령을 흐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정부 법안에 드러난 국가인권기구는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권기구가 아닌, 나약한 정권홍보용 장식품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인권대통령의 ‘개혁 중의 개혁’은 지금 실패로 끝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권이 짓밟히는 현장에서 인권 피해자들과 살 맞대고 사는 삶, 이것을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천직으로 삼습니다. 이런 우리가 국가인권기구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당연히 현실의 인권피해자들이 이 인권법을 통해 침해

당한 인권을 얼마나 구제 받을 수 있느냐, 인권침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안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정부법안으로 는 짓밟힌 이들, 약한 이들의 인권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법안대로라면 인권위의 최초 정관작성을 담당할 설립위원 추천권과 정관 인가권도 법무부 장관에 독점돼 있습니다. '허수아비 인권기구'를 부여잡고 외쳐대는 '인권대통령'은 허공속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정부의 인권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인권기구 설립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인권의 세기'가 될 새로운 천년의 기반을 닦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에 실질적 기반을 만들어줄 인권기구 설립은 절대로 급하게 이뤄져서는 안된다는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인권·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에게 인권기구 설립논의를 개방해 설립과정 자체가 살아있는 인권교육의 장이 되고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은 김대통령이 애초 약속한 '국제여론이 지지하고 국내 인권단체가 환영하는 인권기구'를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입니다.

18개 단체 인권활동가연합단식 농성단(총 34명)

민가협

남규선(총무) 채은아(간사) 송소연(간사)

이상희(간사) 김일숙(간사)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대표) 양지용(전 대표) 정병선(교육팀장)

신길용(회원)

불교인권위

도관스님(사무처장)

사회진보연대

정종권(사무국장)

서울대 총학생회

이석민(인권위원장·법대4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윤주(사무국장) 김미영(안양 전진상 복지관 간사)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대표) 유해정(자유권위원회) 최은아(총무)

유점열(인권하루소식 기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수미(정책교육국 간사)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김영옥(교육위원장)

참여연대

차미경(국제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

오창익(사무국장) 고상만(간사) 맹주형(간사)

권수진(간사)

청년진보당 인권위

이창수(인권위원장)

추모단체연대회의

구선주(조직국장)

한국국제문제연구소

이진원(기획국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정유석(위기센터 인권위원회 부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노주희(인권부장) 채미영(간사)

한국여성민우회

윤정숙(사무처장)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정주연(인권사회부장) 정춘숙(인권사회위원장)

1. • 인천방송 <생방송, 박찬숙의 터놓고 말합니다> '미전향 장기수 복송 어떻게 볼 것인가'에 권오현 회장, 패널로 출연 조건없는 송환 주장
2. • '41년 장기수 우용각 등 2.25 석방자 기자회견' (기독교회관 2층 강당). 기자회견에 참석한 석방자들은 양심수 석방과 인권개선에 힘써온 나라안팎의 인권, 종교, 사회단체에 감사하며 남은 양심수의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
4. • '구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기자회견' (조계사 문화관)
 - 민가협 270회 목요집회. 2·25 석방자와 함께(우용각, 박완규, 김익진, 장병락, 안영기, 김은환, 양희철, 최수일, 조상록, 강용주, 구장주, 설중호, 김병수 등 참석). 강용주씨가 석방자 대표로 인사. 조순덕 어머니가 2월 25일, 안동교도소에 다녀온 소감 말씀,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류락진(73세·94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씨가 딸에게 쓴 편지 낭독. 꽃다지와 가수 이지상씨가 좋은 노래로 함께함.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문제해결을 위한 연대회의 참가단체 실무회의(참여연대 사무실)
5. •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연대집회(조계사 대법당 앞)
6. • 국민회의 한화갑 총무 면담(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민가협 권오현 공동의장 등) 2·25 사면 조치의 문제점 지적, 국보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준법서약서 철회, 양심수 석방, 수배 해제 촉구.
7. • 갈현동 만남의 집 이사준비. 문작 다시 달기 등, 김호현 운영위원과 함께 점검
10. • 낙성대 만남의 집에 보관중이던 장농과 옷가지 등 선생님들의 짐을 갈현동 만남의 집으로 옮기다. 이정태, 박영생, 변의숙, 이훈 회원이 함께 하다.
 - 국제사면위원회, 국가보안법 개폐 등 한국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한국인권캠페인'을 8일부터 벌이고 있다고 한국지부가 발표. 3.5월까지 이어질 캠페인에서는 단병호 전 금속연맹위원장 등 구속노동자와 영남위원회 구속자 석방,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사형제도 폐지 등 교도소 수감조건 개선, 정치범에 대한 사후 감시체계(보안관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활동하기로 했다고.
 - '고문가해자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준비위원회' (기독교회관 대강당). 서경원 전의원을 대표로, 고문가해자 청산, 고문조작 간첩사건 진상규명과 국가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보기관의 인권침해 감시 등을 벌이기로 함.
11. • 민가협 271회 목요집회. '정치수배자 문제와 양심수 군문제를 해결하라' 오창규(33세·93년 전남대 총학생회장·남총련 의장활동 중 수배·현재 조계사 농성중)씨 호소문 낭독, 양군모 회원 이경로(30세·92년 전주대 총학생회장 활동중 수배)씨 아내 편지글 낭독, 유병문(28세·96년 한총련 조통위원장 활동중 수배)씨 시 낭독, 김현곤(31세·97년 한총련 연대사업활동중 수배)씨 어머니가 쓴 편지 낭송. 조국과 청춘이 좋은 노래로 함께함.
 - '비전향장기수 선생님 석방 환영대회' (전국연합 주최/향린교회). 오종렬 상임의장 인사말, 신창균 범민련 고문과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환영사,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2·25 사면

- 의미와 앞으로 계획, 노래단 천리마의 축하, 홍근수 목사님의 정리말, 선물전달.
12.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2·25 사면으로 석방된 비전향장기수 환영행사.
 • • 우용각, 박완규, 김익진, 장병락, 양정호 선생님 갈현동 만남의 집으로 이사. 이정태, 변의숙, 김태일 회원 애쓰다.
 • • 구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대책위와 수배자 가족들, 과천 법무부 앞 농성. 김정숙 민가협 상임의장, 홍근수 민권공대위 상임대표, 진관스님, 가족대표들, 박상천 법무부장관 만나 정치수배해제 촉구
13. • 민가협 운영위원회. 14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3월 31일 총회하기로 잠정 결정.
14. • 비전향 장기수를 지원해 왔던 한빛교회(담임목사 유원규), 2·25 사면으로 출소한 선생님들을 초청 '분단의 감옥에서 출소한 할아버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를 드리고 선생님들이 보내온 편지와 그림전을 하며 교회성도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가짐.
 • • 2·25 석방자 선생님들 가운데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아이타운' 안경점(대표 김우현)에서 안경을 맞추다.
 • • 법무부는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에 따라 국보법 7조(찬양, 고무등) 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김근태, 박태훈씨에 대해 '국제인권규약위반' 이라고 결정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정을 한글로 번역, 14일 발표. 그러나 금전배상을 포함한 구제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힘.
15. • 양심수후원회 3월 운영위원회. 재정, 사업보고, 11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지도위원, 운영위원, 감사, 간사)문제, 갈현동 만남의집 마련 모금 4월말 까지 하기로 결정.
 • • 갈현동 만남의 집 선생님들 관련 갈현1동 동장, 사회복지계원 면담.
16. • 갈현동 만남의 집 선생님들의 '거택보호자' 규정과 관련 은평구청장(비서실장), 사회복지계원 면담.
17. • 정치수배해제 등 양심수 문제와 관련,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과 정치수배 가족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면담.
 • • '청년양심수 정상적 사회복지를 위한 국방부 규탄 및 장관면담 촉구대회' (청년양심수 정상적 사회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주최/국방부 앞).
 • • 서울고법 형사5부 '천리마 노래단' 에 가입, 북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씨에게 '이적활동' 을 했다해도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에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찬양·고무죄만 적용, 징역8월 집유1년 선고.
18. • 민가협 272회 목요집회. 최근 인권침해 사례를 주제로 7기 한총련 탄압 사례발표(서울산업대 손우정 전기전자대 회장, 한총련 대의원), 성남 푸른학교 탄압사례(김미희 성남시의원 발표), 준법서약 철회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목포교도소에서 단식중인 최진선(한국의국어대 용인교정 94년 총학생회장, 96년 구속) 학생 사례를 어머니가 발표.
 • • 서울경찰청, 농업개혁을 요구하며 농협중앙회 건물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유상욱 사무총장 등 9명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

1999년

3월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 • 의정부 교도소, 김호 징벌 관련 항의방문.
20. • 정순덕 선생님 뇌출혈로 쓰러져 보라매 병원 입원.
 - 수배해제를 위한 문화제 '수배자와 양심수에게 자유의 봄을...' (조계사)
21. • 양심수후원회 3월산행. 모두 36명이 연신내역을 떠나 불광사를 거쳐 향로봉 맞은편 능선, 연신내 역쪽으로 내려와 갈현동 만남의 집에 들러 뒤풀이를 가짐.
22. • 민가협 제14차 총회 제1차 준비위원회.
 - 정부여당,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 성격을 갖는 민간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로 하는 최종안 합의. 박상천 법무장관과 국민회의, 자민련 정책위원장이 합의한 국민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치고 국무총리 추천권, 인권위 직원의 파견공무원제, 인권위 결정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 인권침해 사건에서 '시정권고'와 의사표명권박에 없고, 인권침해 행위를 9가지로 제한 규정하고 있는 등 독립성과 실효성이 없어 민간공추위 등 즉각 반대입장을 발표.
 -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공안부장 감사회의에서 국가보안법 남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안사범 수사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지시.
23. • '인권법 제정 및 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대표자회의. 당정합의안, 독립성, 실효성 없어 반대하기로. 성명서 채택.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의장실 항의방문.
24. •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 이적단체 혐의로 동서대 '자주대오 민족21'을 결성, 각종집회를 연 혐의로 동서대생 구자현씨 등 2명을 구속, 이아무개씨 등 12명 불구속. 또한 부산기무대도 현역 병인 이 단체회원 이아무개씨를 같은 혐의로 조사.
25. • 민가협 273회 목요집회. 최근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 이강현(고려대 99년 총학생회장, 7기 한총련 대의원)씨 구속사례를 송범근 부총학생회장이 발표, 장흥교도소에 수감중인 나호영(부산대, 5기 한총련 정책위원장)이 보내온 편지낭송, 22일 당정간에 최종합의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임기란 어머니, 공추위 성명서 낭독. 노래패 천리마가 함께 함.
 - 박상천 법무부장관, 법무부 국정보고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이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대북정책을 제약하고 모호한 내용 때문에 안보와 무관한 행위까지 처벌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개정의사를 밝힘.
26. • '날치기 인권법 당,정 협의 규탄집회' (인권법 제정 민간단체 공추위 주최/여의도국민회의 당사앞)
 - 민가협 14차총회 제2차 준비위원회 모임. 민가협 총평, 구학협, 후원회 평가, 총회진행 순서 및 역할 등 협의.
27. • 김종태 열사 구묘역에서 신묘역으로 이장(망월동)
28. • '2·25 출소선생님 환영모임' (민권공대위가 주최/홍익대 학생회관 식당)
 -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 한총련 대표로 지난해 평양대축전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5년구형을 받은 황선(덕성여대 국문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잡입탈출 혐의 적용은 무리하니 다시검토하라'며 검찰에 의견서 제출요구.

29. • 민가협 14차 총회 제3차 준비위원회. 공동의장단, 임기란 구학협 회장을 상임의장으로 호선.
30. • 인권법 제정 민간단체공추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뒤에서 당정합의 인권법안 반대 침묵시위.
• 당정합의 인권법안 국무회의에서 통과.
31. • 민가협 제14차 정기총회. 서울민가협을 비롯한 대전, 전주, 광주, 부산, 대구 등 지방 민가협 회원과 3.13, 8.15, 2.25 출소양심수, 전국연합, 민변 등 사회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함께하여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열림. 권오현 공동의장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박용길 공동의장의 개회사, 참가자소개, 총회준비위원회 보고, 98사업 및 재정보고(김정숙 상임의장), 지방민가협 대표사업보고, 감사보고(권처홍, 안옥희, 류종인 감사), 규약검토, 99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안, 99사업계획안(남규선 총무)를 승인하고 감사선출은 전년도 감사를 유임하는 것으로 동의. 김정숙 상임의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 임기란 99상임의장 인사, 99전국민가협 일꾼 인사, 총회결의문(조순덕 구학협 부회장 낭독)을 채택. 2부는 김정환, 최광기씨 공동사회로, '장기수 우용각 등 3.13, 8.15, 2.25 석방자와 함께하는 작은음악회'를 열어 조국과 청춘, 가극단 금강, 석방자들의 장기자랑, 감옥에 남아있는 양심수가 가족에게 전해주는 선물, 편지, 등을 감옥에서 나온 양심수가 대신 전해주는 시간을 갖다. 기독교 회관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뒷풀이를 가짐.
- 이돈명 변호사, 박형규 목사, 리영희 교수, 김승훈 신부 등 각계인사 원로 29명,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의 통과된 인권법안은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법안을 철회하고 그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
 - 양심수 73명(기결)에게 영치금 발송.
 - 다섯 곳의 교도소에 <말> 4월호 발송.
 - 낙성대와 갈현동 만남의집, 무연고 출소장기수 선생님 네분께 생활지원금 드림.
 - 미국 수도장로교회(담임목사 조명철)에서 보내온 양심수 자녀돕기 성금을 이화춘, 최호경, 민경우씨 자녀에게 전달.

인권교육 길잡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지음, 도서출판 사람생각(Tel. 3675-4096)



근대와 진보라는 화두는 결국 인권의 문제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 인권이고, '어떻게' 인권에 대해 배워야 할 지 난감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작은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이 책 <인권교육 길잡이>다. 이 책은 또한 인권전문 출판을 지향하는 출판사 '사람생각'에서 <한국감독의 현실>에 이어 내놓은 두 번째 인권총서이다.

나눔과 섬김

- 안쓰는 물건들을 찾습니다 -

과천 한지훈 선생님이 '한백의 집' (홍문거, 장호, 안영기, 김은환 선생님 거주)의 자립을 위해 뜻있는 분의 힘으로 재활용품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안쓰는 물건들, 헌책은 물론 그림, 핸드백, 의류, 장식품, 신발 등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큰힘이 될 것입니다.

연락처 02) 502-8443

기쁜일 슬픈일

- 지난 3월 16일, 민가협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구학협) 총회가 열려 새회장에 임기란, 부회장에 조순선(강용주 어머니), 조순덕(위영석 어머니), 임미자(김호 어머니), 이정남(박성철 어머니), 장재욱(수배자 이창희 어머니)를 뽑고 감사에 서경순(이창규 어머니), 김정숙(임종석 어머니) 회원을, 후원회장으로 안금득(조형곤 어머니) 회원을 뽑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3월 1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김호현 운영위원이 낙성대, 봉천동 만남의 집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희밥과 보름 반찬으로 점심대접을 하며 민족전통 명절 훈훈한 한때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주에 살고계신 정순택 선생님께서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여 먼길을 마다않고 손수 갖고 오셔서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3월 8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숙 98년 민가협 상임의장 셋째 아들 임종승 군이 3월 6일, 서경순 전 민가협 상임의장 아들 이창규 군이 3월 13일, 혼례를 올렸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 고대 어머니회'의 이병선 어머니께서 밥그릇, 국그릇, 수저 등 갖가지 부엌 살림 그릇을 새로 이사갈 만남의 집에서 쓰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가협 회원 김옥순(박노해 시인 어머니)님 칠순 잔치가 남산타워 지하식당에서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직장암 수술을 다섯 번이나 받고서도 의연한 모습으로 투병하시면서 지금은 매우 건강한 모습으로 잔치상을 받으셨습니다.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축하와 건강을 빌었습니다.
-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한평생을 바친 계훈제 선생님께서 3월 14일 오전 7시, 오랜 투병 끝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18일, '민족의 지도자 고 계훈제 선생 민주사회장'을 서울대병원 빈소에 발인제, 대학로에서 영결식을 거쳐 비가오는 가운데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에 안장했습니다. 고이 잠드소서.

출소장기수 선생님 소식

- 정순덕 선생님(67세, 낙성대 만남의 집 거주)께서 지난 3월 20일, 뇌출혈로 쓰러져 보라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십니다. 20일, 점심식사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당의원 긴급왕진 의료진의 응급 조치를 받으며 보라매 병원으로 옮겨졌던 선생님은 뇌혈관검사(서울대 병원)와 뇌수술을 받고 오랜 수면상태에서 깨어나 4월 6일경부터 사람을 알아보고 입안으로라도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산소호흡기를 떼고 스스로 호흡할 수 있도록 산소공급만 하고 있으며 미음 등 음식물을 코를 통해 주입하고 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등 정상을 유지하고, 부었던 몸도 점차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랜 고난의 세월도 이겨내신 것처럼 어서 빨리 자리털고 일어나시기를 빕니다.
- 과천에서 새롭게 공동체로 생활하시게 된 홍문거, 장호, 김은환, 안영기 선생께서 4월 3일 새로 '한백의 집'으로 이사, 힘찬 출발을 하셨습니다. 홍문거 선생님은 93년 풀려나와 과천에서 머무셨고 김은환, 안영기 선생님은 이번 2월 25일 풀려나오셨습니다. 또한 장호 선생님은 91년 2월 25일 석방되어 그동안 친지택에 머물다가 이번 2월 25일 사면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보신후 서울 낙성대 만남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후 한일병원에 입원, 전립선 수술을 받고 치료중이었다가 완쾌하셔서 4월 8일, 퇴원하고 과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회원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9-2
- 광주 '통일의 집' 집들이가 있었습니다. 광주, 전남지역 '양심인후원회'가 주관하는 비전향 장기수 출소환영 및 '통일의 집' 현판식이 4월 2일, 광주시 두암동 '통일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200여 명이 함께하며 축하모임과 현판식을 갖고 푸짐한 뒷풀이를 하였습니다. 통일의 집이 언제나 평화롭고 선생님들 건강히 계시다가 고향과 가족품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 유성구 적오산 농장에 머물기로 하였던 최선

목, 최수일 선생님이 4월 9일, 거처를 옮겼습니다.
대전 성공회 류락준 신부님이 마련하신 집으로 신부
님의 사무실이 함께 있습니다.

주소 · 대전시 중구 성남1동 194-186

전화 · 042-635-4366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김만섭(서울시 노량진동)	최희석(광주시 월곡1동)
심민아(제주시 일도2동)	서민갑(서울시 불광3동)
이윤아(인천시 산곡4동)	이향나(서울시 방학동)
문현숙(서울시 공덕동)	한규희(서울시 양재2동)
권혜경(전북 군산시)	이응복(서울시 동소문4가)
이향난(고양시 탄현동)	차재경(광명시 소하동)
정진석(전북 부안군)	심향미(광명시 하안3동)
소미영(부천시 중동)	신익선(인천시 간석4동)
강경순(구로구 구로본동)	이창수(강원도 동해시)
황현승(서울시 청파1동)	이병걸(서울시 목4동)

북녘동포돕기 성금을 보내주시는 회원

권오현(98년 11월~99년 3월) 500,000
김소선(12월) 100,000
음시룡감시룡(12월) 500,000
이정연(2월) 25달러
조창손(12월) 100,000
한희숙 60,000

북녘동포돕기 성금계좌는 계속 열려있습니다

제일은행 : 159-10-001411
권오현양심수후원회

북녘동포돕기 성금을 보내주시는 회원

출소장기수 머물 곳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에
함께 해주신 분들입니다.

양심수후원회에서 벌이는

출소 장기수 선생님 머물 곳 마련 사업에
아래와 같이 많은 회원들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벌리는 이 모금운동에
더 많은 회원들의 정성을 기다리겠습니다.

〈제일은행 159-55-001877 예금주 : 권오현〉

고은강 20,000	곽윤이 200,000
권오현 1,000,000	금선생님 10,000,000
김광일 100,000	김나영 30,000
김명호 200,000	김명희 200,000
김미정 300,000	김순심 100,000
김영민 50,000	김현희 100,000
김호현 1,000,000	나윤경 10,000
류정식 10,000	법륜스님 100,000
손상희 20,000	손영주 100,000
송경용 500,000	송애천 100,000
음시룡감시룡 1,000,000	우동철 100,000
유선생님 5,000,000	윤경섭 100,000
이기욱 1,000,000	이미경 1,550,000
이용금 300,000	이정규 100,000
이향나 100,000	이향란 500,000
임기란 100,000	장민성 20,000
전경희 20,000	정기환 50,000
정병도 50,000	정진석 100,000
정현용 100,000	조규용 5,000
조기중 100,000	조명희 200,000
조영산 10,000	청년사회인 클럽 370,000
최수일 10,000	최희석 100,000
탁무권 1,000,000	향린교회 300,000
허 규 30,000	황영태 50,000
황해평 300,000	황현승 200,000